

“시내버스 1187은 무등산 높이를 뜻해요”

■ 무등산 소개하는 미국인 해설사 워런 파슨스씨

탐방코스 200회 이상 산행...아직도 갈곳 많아 완벽한 문화재 정보 전달 위해 한자 공부 했죠

“미국인 해설사가 들려주는 무등산 이야기, 영어로 들으니 새롭네요”

무등산과 '10년 지기' 인연을 맺어온 미국인 영어 강사가 올해는 무등산 해설사로 나섰다. 올 들어 광주국제교류센터(GIC)는 워런 파슨스(34)씨가 안내와 해설을 맡은 무등산 탐방 프로그램 'GIC 트렉(Trek·사진)'을 진행하고 있다. 국적과 나이에 상관없이 선착순 12명을 모집하는 탐방은 매월 초·중급자 난이도에 따라 다른 코스로 짜인다.

지난달 14일에는 캐나다·필리핀 등 외국인 6명과 한국인 7명이 초급 코스 탐방에 참여했다. 첫 탐방은 원효사를 출발해 너털지대~당산나무~증심사~한국제다(製茶)까지 5시간(7km) 여정으로 기획했다.

동신대학교에서 영어 강의를 하는 파슨스씨는 지난 2005년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 터를 잡으면서 매주 무등산을 찾고 있다. 파슨스씨는 “무등산은 수십 가지 탐방코스를 따라 200번 넘게 올랐어도 매번 새롭다”며 “광주·전남의 수많은 명소를 여행했지만 아직 가보고 싶은 곳이 많다”고 말했다.

여행 프로그램은 많지만 외국인 시각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여행은 많지 않았던 것이 파슨스씨가 해설사로 나선 이유다. 같은 장소를 스스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교통·숙박 등 여행정보를 상세히 알려주는 데에 광주·전남의 지역 외국인의 참가도 많은 편이다. 최근 파슨스씨와 광주에서 화족을 밝힌 김진주(여·30)씨는 그의 든든한 탐방 파트너.

파슨스씨는 “시내버스 번호 1187은 무등산 높이 1187m를 뜻한다”고 설명하면서 도심 어디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국립공원에 갈 수 있는 것이 광주 무등산의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여행객에게 올바른 문화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한자 표기까지 홀로 공부했다.

파슨스씨가 원효사 감로정(甘露井)을 방문할 때 빼놓지 않는 설명은 원효사를 창건한 신라 고승 원효대사에 얽힌 일화다. 탐방객에게 약수를 권하면서 원효가 당나라 유학길 중 해골 물을 달게 마시고 나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를 하면



공부했다. 파슨스씨가 원효사 감로정(甘露井)을 방문할 때 빼놓지 않는 설명은 원효사를 창건한 신라 고승 원효대사에 얽힌 일화다. 탐방객에게 약수를 권하면서 원효가 당나라 유학길 중 해골 물을 달게 마시고 나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를 하면

누구라도 흥미를 갖게 된다는 게 파슨스씨가 귀중한 인기 비결이다.

탐방에 참여했던 김정선(여·52)씨는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하며 친분도 쌓을 목적으로 참가했는데 광주시민보다 더한 워런의 무등산 사랑에 놀랐다”며 “무등산 천왕봉(天王峯)의 뜻은 'King of Heaven'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해설사는 워런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국제교류센터는 오는 28일, 파슨스씨와 함께 해남 '공룡박물관'과 고산 윤선도의 유적인 '녹우당', 1.6km 길이로 국내에서 가장 긴 두륜산 케이블카 등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글·사진=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미국인 해설사 워런 파슨스(맨 왼쪽)씨와 광주국제교류센터(Gwangju International Center) 'GIC 트렉' 참가자들이 지난달 14일 무등산 너털지대에 올라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0 달뜨기 16:24
해질 18:29 달지기 05:15

강풍 동반 봄비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2/9	보성	가평	-1/8	
목포	가평	2/10	순천	가평	2/9
여수	가평	3/8	영광	가평	1/10
나주	가평	0/10	진도	가평	2/10
완도	가평	1/10	전주	가평	1/9
구례	가평	-1/9	군산	가평	1/8
강진	가평	1/10	남원	가평	-2/10
해남	가평	0/10	홍산도	가평	5/10
장성	가평	-1/9			



◇비다 날씨

지역	구분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해	남	0.5~1.5	서	1.5~3.0
	남부	남	1.0~2.5	서	2.0~4.0
남해	남해	남	0.5~1.0	서	1.0~2.0
	서부	남	1.0~2.0	서	2.0~3.0
남해	서부	남	1.0~2.0	서	2.0~3.0
	남부	남	1.0~2.0	서	2.0~3.0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50
빨래	6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0:39	13:21	06:05	18:40
여수	08:14	20:24	01:47	14:19

◇주간 날씨

4(수)	5(목)	6(금)	7(토)	8(일)	9(월)	10(화)
☀	☀	☀	☀	☀	☀	☀
-2/4	-2/7	-1/10	2/12	1/13	2/11	2/10

광주·전남 오늘 낮 비소식...내일은 '반짝추위'

광주와 전남지역에 봄비가 내린 뒤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일 광주·전남지역은 서해상에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겠다”고 2일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8도~10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오후부터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우량은 5mm내외. 4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이 많이 끼고 갑작스런 추위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2도~5도로 이는 평년보다 5~6도가량 낮은 것이다. 또 갑작스런 추위에 강한 바람까지 겹치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반짝' 추위는 하루간 기승을 부리다가 다음날부터 점차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이라며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급변하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안전진단도 안끝난 제2수원지 개방 논란

광주시 동구 용연동서 14일 개방행사 추진 市 “매화꽃 개화시기 맞추려 일정 앞당긴 것”

광주시가 매화꽃 개화 시기에 맞춰 제2수원지를 개방키로 했다. 지난해 댐 누수 현상 등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성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14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광주시 동구 용

연동 제2수원지를 개방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는 애초 28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매화꽃 개화 시기에 맞춰 14일로 앞당겼다고 덧붙였다. 제2수원지는 지난 1981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일반인 접근이 제한

됐던 곳으로, 34년 만에 민간에게 개방되는 셈이다. 하지만 제2수원지가 지난해 9월 댐 누수 현상 및 콘크리트 균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정밀 안전진단에 들어간 상황으로, 아직 진단 결과 뿐 아니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 공사조차 하지 않은 실정이다. 제2수원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종 보고회는 오는 19일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설마, 괜찮겠지'라

는 안일한 안전 의식에 따라 성급하게 개방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개방 행사를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민간합동점검단은 지난해 제2수원지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 점검 결과, “긴급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물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총기류 GPS 부착 의무화...개인 실탄 소지 금지

당·정, 총기대책 입법 추진

업종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되고,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된다.

또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고, 특히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해야 한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총기관

사 사고 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열린 최고위위원회에서 이 같은 협의 결과를 전하며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등 제도 개선과 추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허용되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데다,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mm 이하 공기총은 개인 소지를 허용하고 있어 언제든 총기 사고가 터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

/ 연합뉴스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매기살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백 (6,000원)

초대박매출
신규창업, 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픈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262-0049/010-3803-2612
오지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바리다매!!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적은아침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수는 불경기형 맞춤형 브랜드 손님들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있습니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초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32-6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간직 52-66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36-59세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무술신 여성' 희망 31-58세
대(중, 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소전복 27-36세	자영업, 가사 35-64세
		'우저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이랜드 B1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